羅喆의 人物과 活動

—大倧敎 創始 이전을 중심으로—

박 환

Ⅰ. 序 言
Ⅱ. 羅喆의 家系와 敎育
Ⅲ. 羅喆의 活動
Ⅳ. 結 語

Ⅰ. 序 言

나철은 구한말, 檀君信仰을 고취한 대종교를 창시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42년에 滿洲에서 체포된 대종교 신자들에 대한 일본측의 기소문을 보면,

> 대종교는 그 이전 이름을 檀君敎라 칭하고 1909년 정월 15일에 朝鮮 京城府에서 나철이 自古로 조선 민족간의 신앙에 있어서, 조선 민족의 始祖이며 國祖라고 전승하여 온 단군을 숭봉하며 이에 歸一함으로써 조선 민족 정신의 순화·통일과 조선 민족 의식의 양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선 민족 결합의 강화에 의하여 독립 국가로서 조선의 존속을 목표로 하고 다수 동지와 함께 결성하여 스스로 제1세 敎主라고 한 단체로서(後略)[1]

라고 있듯이, 대종교는 종교를 표방한 독립운동단체였던 것이다. 즉 나철은 대종교를 통하여 활발히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민족운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종교 창시 이전의 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나철이란 인물에 관하여 鄭喬가 평가하기를

---

1) 大倧敎總本司, 「壬午十賢殉敎實錄」(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pp. 35~36

以憂國爲己任 及日本東京 致書于政府及各省 又上書于日皇 所論謹嚴明快 謄報於各新聞 天下始知我韓之有人 而日本廷臣亦歎賞不已[2]

라고 하였고, 金允植도

心如鐵石 不以盛替移節 丁酉合併時 君痛恨時事 欲翦政府以雪亡國之恥 事敗被抱抗言不屈[3]

라고 하고 있듯이 憂國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대종교 창시 이전의 나철의 활동에 관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시기의 나철의 인물과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의 가계와 교육에 관하여 알아 보고, 이어서 東洋平和論의 추구, 自新會의 조직, 대종교의 창시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서만이 대종교의 창시 배경은 물론 대종교인의 민족운동과 그 성격에 대하여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구한말 및 일제하의 민족운동의 일단면을 보다 잘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Ⅱ. 羅喆의 家系와 敎育

나철의 이름은 喆, 斗永, 寅永, 또는 瑱永이며, 字는 文卿, 號는 耕田, 經田, 弘巖이었고, 堂號는 一之堂을 사용하였다. 本貫은 羅州이며, 고향은 全羅南道 樂安郡 南山面 錦谷里(현재 全南 寶城郡 筏橋邑 七洞里 錦谷

2) 「大韓季年史」(國史編纂委員會, 1971) 下, 光武十一年(1907) 三月條
3) 「續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1974) 下, 1916年 9月 12日條
4) 다만 朴永錫이 '大倧敎의 民族意識과 民族獨立運動', 「日帝下 獨立運動史研究」, (一潮閣, 1984)에서 대종교인의 민족운동을 다루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부락)였다.[5)]

「羅州羅氏大同譜」에 의하면[6)] 中始祖는 羅源이며, 나철은 그로부터 21世에 해당된다. 나원은 고려시대에 司醞署 直長同正을 역임하였다. 派祖인 羅海崙은 進士였으며, 8代祖인 僖, 7代祖 天鼎은 각각 生員과 進士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전혀 벼슬 길에 나가지 못하였다〈표 1 참조〉.

〈표 1〉 **羅喆의 家系圖**(「羅州羅氏大同譜」 1982年刊 참조)

15世 海崙(1583~1651) 進士
16世 僖 (1617~1686) 生員
17世 天鼎(1649~1713) 進士
18世 以樺(1700~1757)
19世 宗岳(1709~1770)
20世 象翼(1729~1804)
21世 碩采(1770~1818)
22世 壽天(1814~1860)
23世 龍集(1840~1877)─台永 (1860~1893)
├斗永 (1863~1916) 改名寅永舊名喆 字文卿號耕田改號弘巖
└完永 (1865~1873)

따라서 나철은 신분적인 면에서 볼 때 전라도 지역의 寒微한 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경제적인 면에서도 鄭喬가 "寅永等 素家貧"[7)]이라고 하였듯이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생각된다.[8)]

다음에는 그의 교육에 대하여 알아 보자. 이와 관련하여 그의 스승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승에 대하여는 「大韓季年史」 光武十一年 三月條에

5) 「續陰晴史」 上·下, 「羅州羅氏大同譜」(1982年刊) 및 大倧敎總本司, 「홍암신형조천기」, 1971 등 참조
6) 1982년에 四冊으로 간행된 것을 참조하였음.
7)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8) 1986년 9월 13일 羅鍾權(羅喆의 長子인 羅正練의 둘째 아들, 1923年生,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1-114 거주)과 그의 자택에서 가진 대담에서도 역시 집안이 가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先是 寅永師事前外部大臣金允植 及允植之被謫在楸子島也 寅永歲一往候之

라 있듯이, 外部大臣이었던 김윤식의 지도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나철이 김윤식의 문인이 된 것은 그의 나이 21(22)세때인 1883(1884)년으로 생각된다.[9] 그가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김윤식의 문인이 되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당시 김윤식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80년대 초, 김윤식은 중앙 정계의 고위직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즉 그는 江華留守·工曹判書·禮曹判書·兵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있었던 것이다.[10] 아울러 개화사상가로서 또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老論학자인 兪莘煥으로부터 전통적인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朴珪壽에게도 수학함으로써 서구문물과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11] 특히 김윤식은 개화를 時務로 파악하였다. 그의 시무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분류 방식을 따를 때 東道西器論的인 정통유학자의 것이었다.[12] 아울러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던 조선을 어떻게 하면 부강한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13] 그러므로 나철은 정계의 지도자인 김윤식의 문인이 됨으로써 정치적인 출세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것이다.[14] 아울러 그로부터 개화사상을 수용하는

9) 羅注書斗永來宿 羅君客於吾家六七年 今多(1891-필자주) 應製中大科(「續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1960) 高宗二十八年(1891) 十二月 九日條)

10) 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1972), pp.122~123

11) 鄭玉子, '雲養 金允植(1835~1922)研究', 「高柄翊先生回甲紀念史學論叢」(한울, 1984) pp.623~625.

12) 鄭玉子, 앞의 논문, pp.629~634

13) 崔雲植, '金允植의 自强論 研究', 「大邱史學」 25, 1984, pp.33~37.

14) 신분적·경제적으로 보잘 것 없는 나철이 거물 정치인인 김윤식의 문인이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하여 살필 수 있는 문헌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해오는 일화에 따르면 1884년에 서울에 올라온 나철은 자신의 경륜을 펴기 위하여 세력가인 김윤식의 문인이 되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철과 같은 인물이 김윤식의 집을 찾아들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를 만나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마침 봄날이라 南山에서 南北村의 大臣들이 모여 花煎놀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철은 그 기회를 이

한편 조선의 自强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나철의 정치적 출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특히 서울에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집안도 한미하였던 그가 스승 김윤식에 거는 기대는 대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나철의 그러한 기대는 김윤식의 정치적 실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김윤식이 淸勢力과 閔妃政權 사이의 알력에 희생되어, 1887년 6월에 忠南 沔川(唐津郡)으로 유배를 당하여[15] 1893년 2월 14일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16]

그리하여 나철은 서울에 온지 6(7)년 만인 1891년에 大科에 壯元하였던 것이다.[17] 그리고 그해 11월 25일에는 承政院 假注書의 벼슬에 오르게 되어 高宗을 謁見하고 陪從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893년 3월 19일에는 兵曹司正으로서, 동년 10월 7일에는 承文院 副正字로서 각각 일하였다.[18]

그러나 그의 관직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1893년 10월 24일에 史官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낙향하였기 때문이었다.[19]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나철이, 1894년 甲午更張 이후 김윤식이 외부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올랐을 때에도[20]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21] 정계에 진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을 통하여 볼 때 이 시기에 나철은 이

용, 詩才를 인정받아 김윤식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고 전한다. 즉 이를 계기로 나철과 김윤식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申哲鎬, 「韓國重興宗敎 敎祖論 弘巖 羅喆大宗師」(大倧敎總本司, 1979) pp. 94~97)

15) 「續陰晴史」 上, 高宗二十四年(1887) 六月條

16) 「續陰晴史」 上, 高宗三十年(1893) 二月條

17) 國朝文科榜目(太學社, 1984), 光緒十七年 辛卯 十一月 十日 今辛卯式年文科 景武臺命官 殿試榜 丙科 二十九人

18) 나철이 1916년에 직접 쓴 自筆履歷書참조(대종교총본사소장)

19) 위와 같음

20) 「大韓帝國官員履歷書」, pp. 122~123

21) 나철은 김윤식의 문인이 된 이후 그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續陰晴史」 上·下의 곳곳에 나철이 김윤식의 집을 방문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미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나철의 학문에 대하여 알아 보자. 현재로서는 그가 김윤식으로부터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윤식은 개화사상가였고 자강론자였다. 그러므로 나철 역시 스승을 통하여 개화사상과 자강의 논리에 대하여 배웠을 것이다. 특히 나철의 스승에 대한 태도가 지극하였던 점을 통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1896년 俄館播遷때 외교의 일차 담당자였던 김윤식이 그 책임으로 1년 동안 松坡江 芳村의 田舍에서 待罪하다가 1897년에 제주도 종신유배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22] 이때 나철은 「續陰晴史」 光武一年 二月 二十八日條에,

羅文卿及甲年自京來 文卿爲我孤寂共住計也

라 있듯이, 스승의 '孤寂'을 달래드리기 위하여 함께 유배의 길을 나섰던 것이다. 5년간 즉 1901년 부인의 사망을 계기로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23] 그의 유배생활을 돌보았던 것이다.

한편 나철은 5년동안 김윤식과 함께 제주도에 기거하면서 외부대신이었던 그로부터 외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Ⅲ. 羅喆의 活動

1. 東洋平和論의 추구

나철은 1901년 서울에 온 이후부터 1905년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된 직후까지 활발한 민간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의 그의 활동의 첫번째 특징은 國際公法과 韓·日 양국 사이에 맺어진 約章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나철이 당시의 국제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22) 鄭玉子, 앞의 논문, pp. 626~627
23) 「續陰晴史」 上, 光武五年(1901) 四月 十八日條

데 이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大韓季年史」 光武十一年 三月條에서 李沂가,

余與寅永基鎬最善者 世所共知也

라고 하고 있듯이, 이기와 나철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기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나철의 그것 역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기가 나철과 함께 동일한 외교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24] 더욱 그러하다.

이기는 당시의 상황을 「海鶴遺書」 卷五 〈與尹議政容善書〉에,

小爲大吞 弱爲强併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철 역시 '生存競爭·適者生存' 등으로 그 내용이 집약될 수 있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25] '小爲大吞 弱爲强併'의 입장에서 국제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생존경쟁의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이 독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나철·이기 등의 공통된 고민이었을 것이다. 나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공법과 한·일 양국 사이에 맺어진 약장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그가 이기·洪弼周·李健 등과 聯名하여 올린 〈與金議長嘉鎭論日人移民書〉에,

今我國弱民貧 日人宜無所畏 而其所畏者 惟天下之公法 兩國之約章也 但當嚴飭港吏 謹守條例[26]

라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나철 등이 이처럼 국제공법과 양국간의 약장에 호소하는 것이 조선의

24)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25) 李光麟, '舊韓末 進化論의 受容과 그 影響', 「韓國開化思想硏究」 (一潮閣, 1979) pp. 257~266.
26) 「海鶴遺書」(國史編纂委員會, 1955), 卷五

자주 독립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음의 기록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앞서 언급한 이기의 〈與尹議政容善書〉에,

> 夫百年以來 列邦之變 盖已極矣 小爲大吞 弱爲强併者 皆可歷然 究其起由 則必弱小者先於失禮 而强大者 得以問罪耳 何謂之禮 其能守公法約章也 何謂之罪 不能守公法約章也 吾果無失 彼亦無名 無名之兵 天下所共非 則吾將聽於仲裁之不暇 而暇爲日憂哉

라고 있듯이, 공법과 약장을 잘 지키고 다른 나라에 대하여 失禮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역시 명분이 없으므로 한국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는 침략은 天下가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나철 등은 도덕적인 입장에서 신의에 바탕을 둔 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나철 등의 생각은 1905년 러·일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을 때도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나철 등은 일본이 '大韓帝國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싸운다'고 하는 對露宣戰布告의 구실을 믿고, 일본이 그것을 도덕적인 입장에서 지킬 경우 조선의 독립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나철 등은 1905년 6월 러·일강화조약이 체결되는 미국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駐韓日本公使 林勸助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27]

그러나 그후에도 나철 등의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되었다. 1905년 8월에 渡日한 그는[28] 이기·吳基鎬 등과 함께 日本 天皇에게 조선의 독립을 보존해 줄 것을 상소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이 1905년 11월 4일자 「大韓每日申報」〈雜報〉에 全文이 게재되어 있다. 이 상소문에서 나철 등은,

---

27)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28) 위와 같음

謹按 甲午八月一日勅書曰 朝鮮本我所啓誘 以伍歐亞列强 其爲自立國 明矣 而淸國以屬邦視之 陰誘陽嚇 于涉內政 朕據明治十五年條約 出兵備變 更欲使朝鮮免禍亂於永遠 保治安於將來 以維持東洋全國之平和云云 甲辰二月十日勅書曰 帝國之於韓國 保全其置重者 非一日之故 韓國存亡 實係帝國安危 而俄國不抱盟約 佔居滿洲 併此欲呑 若滿洲歸俄國領有 則韓國保全末由 支那極東平和 亦不可希望 故朕際此機 妥協時局云云 盖此兩勅書 同歸一義 昭如日星 信如金石 旣已傳布於天下耳目者也 昔人有云 匹夫猶不食言 況萬乘乎 '故外臣等則曰 近日事 有非陛下之意者 歷觀古史 德與力迭相消長 德勝力則治 力勝德則亂 此天理之常道 而第念陛下 聖神文武 臨御三十有八年 致國於富强 蔚然而東洋之覇主者 豈有他術哉 直以其未嘗失信義於天下故耳

라고 하여, 일본 천황이 1895년 8월 1일과 1904년 2월 10일에 勅書를 내려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음을 상기시키고, 양국간의 약속을 지킬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일본정부에도 일본정부가 한국과 맺은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29]

나철의 외교활동의 두번째 특징은 국제공법과 양국간의 약장을 일본이 지킬 것이라는 믿음하에 東洋平和論을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1900년경부터 국운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자 언론계와 일반 지식인들 사이에는 韓·淸·日은 脣齒輔車의 관계이므로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면 한국도 망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三國이 힘을 합쳐 서양 백인종들의 침략을 격퇴해야만 동양의 강토와 인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동양평화론이 적극 지지되고 있었다.[30] 러·일간의 대립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그리하여 한국의 장래가 위태로워지면 질수록 동양평화론은 서울의 지식인들 사이에 믿어보고 싶은 그럴듯한 독립 보존의 논리로서 유행했던 것이다.[31] 더구나 일본측은 천황의 칙서 등을 통하여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던 터였다.[32]

29) 「大韓季年史」 下, 光武九年(1905) 11月條
30) 張學根, '「東洋平和論」이 大韓帝國에 미친 영향', 「해군사관학교연구보고」 13, 1980, p.6
31) 張學根, 앞의 논문, p.17

나철 등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1905년 11월 일본의 候爵 伊藤博文이 特派大使로서 조선을 방문하여 합병한다는 소문이 있자 나철·오기호·이기 등은 그에게 보낸 전갈문에서,

> 今日韓兩國 脣齒輔車 勢必相須 韓亡則日居其次 天下所共知 而列强之窺其隙者彌滿六洲矣 日之於我韓猶兄弟也 於英美猶朋友也 自戕其兄弟 猶望朋友之善我 則天下無是理也 英美同盟 其可足恃乎 故僕等之言 非獨爲我韓計 亦爲貴國計也 非獨爲貴國計 亦爲東洋計也[33]

라고 하여,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곧 일본 나아가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1905년 8월에 나철 등은 일본에 갔을 때 동양평화론자인 松村雄之進을 만났으며, 1906년 10월에 2차로 渡日했을 때에도 역시 松村雄之進·岡本柳之助·頭山滿 등 동양평화론자들을 우선 만났던 것이다.[34]

그러나 나철 등의 동양평화론에 입각한 민간외교활동은 평화론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야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35] 그것은 松村雄之進이 처음에는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척하더니,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에 이르자 나철 등에게,

> 雄之進謂寅永基鎬曰 前年伊藤博文大韓政策 不無疑危 今日則其策確立 韓國之人無如之何 吾甚惜二君之才志 而識此非常之時 爲二君計莫若立身朝著以養羽毛而待時機 遂以統監府顧問內田良平紹介之[36]

라고 하여, 統監府의 顧問인 內田良平을 소개하는 등 일본에 충성을 바치

32) 「大韓每日申報」 1905年 11月 4日字
33) 朴殷植, '伊藤以時巡大使來韓(제34장)', 「韓國痛史」, 1922
34)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35) 張學根, 앞의 논문, p.2
36)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도록 회유하고 있는 데서도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2. 自新會의 組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나철 등은 외교적인 방법, 즉 나라간의 약속 이행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실천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던 것 같다. 을사오적의 저격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즉 나철은 오기호에게,

> 國勢淪此悲境 外人不可恃也 天下之公論不可待也 今日之計 莫若先除內疚 而不可委人 吾二人決心自行也[37]

라고 하여, 먼저 '內疚'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을사오적을 지목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바로 한국인을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38]

여기에서 나철 등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에 무력으로 대항하기보다 먼저 을사오적을 저격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1907년 4월 17일자 政府顚覆·大臣暗殺企圖事件의 訴狀에,

> (나철은) 아직 大勢를 알지 못하고 兵力으로써 일본에 항쟁하고자 함은 무모함을 논하고 또 2천만 동포의 血憤은 그들 五賊을 도살하는데 있고 現大臣들의 존재는 결국 한국의 독립을 저애한다고 일본의 志士들도 아직 말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所以임을 설명하여 大夏 등 비로소 吾黨의 계획 즉 대신의 암살에 찬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羅·吳의 徒黨은 본시 일본 정책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독립을 他强國의 옹호를 얻지 않고는 안됨을 알고 있는 한편, 戰捷한 日本現下의 지위를 아는 고로 함부로 일본에 반항하지 않음이요 그 음모 강행 후 日本居留地에 榜示하려던 廣告文으로서 족히 알 수 있다,[39]

라고 있듯이, 나철은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는 일본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37) 위와 같음
38) 위와 같음
39) 大倧敎倧經史編纂委員會, 「大倧敎重光六十年史」 (大倧敎總本司) 1971, pp. 16~17

나철 등은 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1907년 2월에 자신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大韓季年史」 光武十一年 三月條에,

> 二月三日(中略)又設自新會 同事諸人合二百餘員 以爲團結之義 又於事成當日 以三十人抱書携兵器 而自現於法司 爲國民代表定之 李沂作自新會趣旨及自現狀 寅永作愛國歌同盟書斬奸狀

라고 있는 데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신회의 구성원은 200여명에 이르렀는데,[40] 현재 알 수 있는 인물들을 도표로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自新會 會員 一覽表

		姓 名	出身地	官 歷	經濟力	出資金	刑 量	備 考
지도부	주모집단	羅 喆	全南樂安	前注書	素家貧	1千金	流10年	문서작성
		吳基鎬	全南唐津	前主事	素家貧		流 5年	재정
	재정담당	金寅植	全北南原	前主事			流 5年	
		李容泰	서 울	現陸軍副將・官內府特進官		一千七百圓	流10年	
		鄭寅國	서 울	前郡守		三百圓	流 7年	
		尹柱瓚	全南唐津	現農商工部主事		二千兩	流 5年	문서작성
		李光秀	全南潭陽	前成均館博士		二萬兩	流10年	〃
		崔翼軫		現憲衛局員		魚驗二百圓	流10年	
		閔衡植		學部協辦		一萬四千兩	流10年	
		金然灝		前參奉		五千金		
	선전담당	李 沂	全北萬頃	現師範學校教官	가난함		流 7年	
		李奭鍾		前承旨			流10年	
부	기타	徐彰輔	서 울	前辨理公使・前郡守			流10年	
		尹忠夏	慶南居昌				流10年	
		金容采		仕寢郎			流10年	
		李承大					流10年	李光季의族叔
		徐廷禧		郵遞主事			流 5年	
		金東弼		進士			流10年	閔泳煥의부하

40)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崔東植		監察			流10年	
	康基煥						
	康相元(元相)	全北錦山				流10年	의병
	池八文	忠北沃川				流10年	
행	朴鍾燮	忠北沃川				流10年	
	李鍾學	忠北永同				絞	
	黃文叔	全北珍山				流10年	
동	李京辰	全北珍山				流10年	
	金京善	忠南懷德					
	趙和(化)春	忠南懷德				流10年	
	朴大夏	慶北金山					의병
대	李鴻來	서 울	前摠巡				閔泳煥의 문인
	徐泰運						
	黃聖周					流10年	
	李容彩						閔泳煥의 부하

※ 이 도표는 官報 第三千八百十八號(光武十一年 七月 十五日), 「大○敎重光六十年史」, pp.5~27, pp.250~256,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 七日條 李康勳, 「獨立運動大事典」, 東亞, 1985, p.602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필자는 자신회의 구성원을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분류해 보았다. 즉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신회를 지도부와 행동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도부는 다시 주모집단, 재정담당, 선전담당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지도부의 주모집단에 속하는 인물로는 나철과 오기호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을사오적의 저격을 계획한 인물로서 정치적으로는 전직 관료이며 경제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의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었다. 재정 담당은 李容泰·鄭寅國·尹柱瓚·李光秀·崔翼軫·閔衡植·金然灝 등이다. 정치적으로는 전직 및 현직관리들이다. 서울 및 전라도 지역 출신이 많으며, 경제적으로는 출자 액수로 보아 어느 정도 부유한 계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선전은 이기·나철·윤주찬·이광수·李奭鍾 등이 담당하였다. 전라도 지역의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자신회의 지도부는 나철이 전라도 지역

출신으로서 서울서 활동한 전직 관료였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나철 등 지도부에서는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라도·충청도·경상도 지역의 의병들을 그들의 행동대로서 조직하였다. 저격의 시도에는 무력 투쟁의 경험이 있는 의병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철은 곧 애국가와 同盟書·斬奸狀 등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기에게는 자신회의 취지서를, 윤주찬·이광수 등에게는 한국 정부와 일본통감부사령부·各國領事館의 公函과 布告內外國人民書를 작성하게 하였다.[41] 이들 문서의 내용은 「大韓季年史」 光武十一年 三月條에,

其諸書愛國之血誠 獨立之主旨 討賊復讐之大義 炳如日星 可以感天地而泣神鬼也

라고 있듯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회를 조직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한 나철 등은 1907년 2월 13일과 동년 3월 25일 양일에 걸쳐 을사오적의 저격을 시도하였으나 준비 미비 및 행동대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42] 그 결과 나철은 오기호·김인식 등과 함께 1907년 4월 1일에 平理院에 자수하였다.[43] 동년 6월에 流刑 10년을 언도받은 나철은 智島로 유배를 갔다.[44]

3. 大倧敎의 創始

나철은 1907년 12월 7일에 皇帝의 特赦로 유형에서 석방되었다.[45] 이때는 헤이그밀사사건으로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純宗을 즉위

41) 위와 같음
42) 위와 같음
43) 「大韓每日申報」 1907年 4月 3日字
44) 官報(光武十一年 七月 十五日 月曜) 第三千八百十八號
45)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케한 해이며,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丁未七條約이 체결되던 시기였다. 나철은 기울어져 가는 국권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투쟁방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그는 1909년 1월 15일(음력) 子時를 기하여 오기호·김윤식·김인식 등 수십명과 함께 서울 北部 齋洞 翠雲亭下 八統 十戶에서 대종교를 창시하였던 것이다.[46]

나철이 대종교를 창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1900년대 후반기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단군신앙이 강조되고 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서울에 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생사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믿고 교육의 진흥을 위한 學會들이 세워져서 활동하고 있었다.[47] 이때 나철 역시 이기·오기호·윤주찬·金永采·이광수·김인식·崔東植 등과 함께 湖南學會에 가담하였던 것이다.[48]

당시 호남학회 등 학회에서는 국어·국사 등의 연구 및 교육에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사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대부분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단군을 開國始祖로 다루어 자주 독립정신의 배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49] 그 중에서도 정교의 주도하에 崔景煥·劉鎬植 등이 참여한 〈大東歷史〉가 주목된다. 이 책은 卷一의 첫머리에 檀君朝鮮記와 按을 두어 단군조선의 독립정신을 강조하는 등 민족 의식이 투철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50]

그런데 정교는 나철과 친한 사이였다.[51] 그러므로 나철 역시 단군을 개국시조로 하여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더우기

46) 大倧敎倧經史編纂委員會, 「大倧敎重光六十年史」, p. 80
47) 李光麟, 「韓國史講座(近代篇)」(一潮閣, 1984) pp. 19~19
48) 이기·윤주찬·최동식(「湖南學會月報」 1호), 나철·오기호(3호), 김영채·김인식(4호), 이광수(5호)
49) 金昌洙, '韓末의 國學振興運動과 民族意識', 「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太學社, 1984) pp. 562~585
50) 金昌洙, 앞의 논문, p. 590
51) 「大韓季年史」 下, 光武十一年 三月條

김윤식이 나철이 사망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素奉檀君聖道' 였던 인물이라고 한 점으로[52] 미루어 보아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번째로는 나철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기가 단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주목할 수 있다. 1910년대에 편찬된 단군에 관한 책인 「桓檀古記」 凡例에,

> 太白逸史 一十堂主人李伯氏所編 乃海鶴李沂先生所藏也 盖桓檀以來 相傳之敎學經文 悉備取材典據 可一見瞭然者也 且天符經 三一神誥兩書全文 俱在篇中 實爲郎家之大學中庸也(中略) 桓檀古記 悉經海鶴李先生之監修

라고 있듯이, 이기는 단군에 관한 서적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군에 관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가 대종교의 경전이 되는 天符經과 三一神誥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철은 정교와 이기를 통하여 단군에 관한 지식을 더욱 넓혀갔을 것이다. 이러한 나철은 1908년 이후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亡國의 원인이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때만이 국권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 방법은 오직 전민족이 거족적으로 국조인 단군을 숭배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53]

나철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추구했던 동양평화론이 일본을 기본적으로 믿는 事大主義에 기초했다는 점, 그리고 을사오적의 저격 시도가 몇몇 인사들에 의한 행동일 뿐, 전민족에 기반을 둔 것이 못되었다는 한계성을 극복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52) 「續陰晴史」 下, 1916年 9月 12日條

53) 大倧敎倧經史編纂委員會, 「大倧敎重光六十年史」, p.79.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사학자인 朴章鉉은 그의 저서 「海東春秋」 卷之四十七 韓紀에서 '寅永等慨宗國之危 欲闡明國祖以繫人心 創檀君敎于京師' 라고 하여 일제에 대항하여 한국인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대종교를 창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가 무력투쟁이 아닌 민족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둔 것은 현재로서는 일본제국주의와의 무력 대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Ⅳ. 結 語

지금까지 대종교 창시 이전의 나철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나철은 전라도 지역의 한미하고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다. 1884(85)년에 김윤식의 문인이 되면서 중앙으로 진출, 서구문물과 대외관계에 대한 안목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강과 독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정비하였다.

그러한 그는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독립보존의 논리로서 동양평화론과 국제공법 및 한·일간의 약장의 준수를 추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3차에 걸쳐 渡日, 일본의 동양평화론자인 松村雄之進 등을 만나는 한편 일본천황, 일본정부 등 각지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한국과 만주 그리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했으며 일본은 한국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906년 일본서 귀국한 그는 현상황에서 무력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을사오적을 저격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바로 한국인을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실행단체로서 자신회를 조직하고 행동대로서 의병 출신들을 규합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준비 부족과 행동대원들의 미숙으로 실패하고 나철은 유형 10년을 언도받았다.

1907년 말 순종의 특사로 풀려난 그는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된 원인이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때만이 국권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 방법은 오직 한민족 전체가 거족적으로 국조인 단군을 정점으로 단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

결국 대종교 창시 이전의 나철의 활동은 구한말 지식인들의 민족운동방략의 변화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